

예배 및 모임안내

- 새벽기도 월~토 5:55 am
- 주일예배 1부 7:00 am
2부 9:00 am
3부 11:00 am
- 주일영어예배(EM) 9:30 am
11:00 am
- 금요찬양예배 7:30 pm
- 유아·유치부 11:00 am
- 초등부 11:00 am
- 중고등부 11:00 am
- 각 선교회모임 매월 첫째주일
- 각 순모임 매월 둘째/넷째주
- 순장모임매월 둘째주일
- 선교회 기도모임 매주일 10:15 am
- 나사렛청년 선교회모임 매주일 12:15 pm

양육 훈련 안내

본교회 훈련은 전도와 양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대일과 소그룹 형태로 진행합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전도 | 고구마전도

양육 | 새교우반, 선교회 성경공부

파송 및 후원 선교사

파송 | 이광보 (아르헨티나)

후원 | 김흥근(헝가리) 윤누가(우즈베키스탄) 윤피터(방글라데시)
이건화(볼리비아) 김성일(페루) Timothy Lee(우간다)
이세정(네팔) 서문안(C국) 조종우(T국)
김억수(레소토) 이재석(필리핀)

후원 선교단체

거자씨선교회	고구마글로벌미션	밀알선교회
크리스찬비전선교회	중부개혁신학교	무디신학생선교
서로돕기센터	몽골교회	미션사랑방교회
아이오와다민족교회	산소망중도실명자선교회	KAPC세계선교회
시카고기독교라디오방송	시카고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통일소망선교회
TICI		

섬기는 이들

- 임시당회장 김성득 목사
- 부목사(KM) 김태한 서요셉 오택근
- 협동목사 이영걸
- 강 도 사 김주석
- 전 도 사 유진경 정다빈 이경애 박은혜
- 시무장로 유진하 이병기 서정일 이현영
전철구 소재만 주대영 심효신



제 2152호 2026년 7월 5일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맥추감사주일]

인도: 서요셉 목사 설교: 김성득 목사

▲ 참회기도	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능하신 주님 (새 8)
▲ 성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1)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새 589/통 308)
기도	1부: 최성진 집사 2부: 이현영 장로
봉헌찬양	성자의 귀한 몸
봉헌기도	설교자
교회소식	설교자
성찬식	세례교인
성가대찬양	주는 나의 포도나무 (2부, 헤브론 성가대)
성경봉독	열왕기상 17:7~16
설 교	마름과 채움 사이, 하나님의 시간
▲ 찬 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새 545)
▲ 축 도	설교자

▲표는 일어섭니다

다음주 섬김이

- 대표기도 1부: 서장택 집사 2부, 3부: 유진하 장로
- 안내위원 1부: 교역자
2부, 3부: 이성준 집사, 박명학 집사

주일에배 3부 (오전 11:00) [맥추감사주일]

인도: 오택근 목사 설교: 김성득 목사	
▲ 예배로의부름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찬양팀 [때가 차매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 도	이현영 장로
봉헌찬양	성자의 귀한 몸
봉헌기도	설교자
교회소식	설교자
성찬식	세례교인
성경봉독	열왕기상 17:7~16
설 교	마름과 채움 사이, 하나님의 시간
▲ 찬 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새 545)
▲ 축 도	설교자

▲표는 일어섭니다

이동농민선교 파송예배 (금요일 오후 7:30)

찬 양	예찬팀
말 씀	시편 67편
설 교	Let the Nations Praise You, Lord! 서요셉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새벽기도회 (오전 5:55)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김태한목사	서요셉목사	김태한목사	서요셉목사	이영결목사	오택근목사
시편 6:1-10	시편 7:1-17	시편 8:1-9	시편 9:1-20	시편 10:1-18	시편 11:1-7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환우들과 작은 별 가정, 안디옥 어르신들, 흠어져있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선교사, 선교사, 선교기관, 선교회를 위해	교역자들이 성령충만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역사회와 한인이민교회, 한국교회 및 미국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일에배, 주일학교, EM 예배를 위하여

지난 주일 설교 요약

*엘리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열왕기상 17:1-7) | 김성득 목사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목사 청빙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일제강점기의 청년 윤동주는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바알을 섬기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현실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엘리아는 아합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지만,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알은 돈, 성공, 안정, 사람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숨겨지는 시간을 건디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아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 숨기셨습니다.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외로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시는 시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아를 먹이셨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공급의 방법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느냐?”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까?

*기도: :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중보 기도제목

-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 1)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 3) 금주의 행사: 피택훈련(주일) 섬머아카데미(월~금) 이동농민선교 파송예배(금)
- 환우를 위하여
 - 강한나(강리아) 권삼남 김극자 김그레이스 김본국 김상희 김순남 김순동 김옥선 김정화 김태영 김화자 류순희 배기자 안영보 윤하율 이근효(이성희) 이금례 이미아 이윤은 이정식 이준권 이진영 전명산 전철구 주연화 최문자 홍정원
-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을 위하여
 - 1)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화합
 - 2) 북한의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 3) 선교사 및 선교단체를 위하여

교회 행사

• 7월	10일(금)	이동농민선교 파송예배
	11일(토)	이동농민선교 후원 세차 행사
	17일(금)	성가대헌신예배
	18일(토)	여선교회 기도모임
	19일(주일)~21일(화)	이동농민선교
	27일(월)~29일(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교회 소식

- 맥추감사주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 선교회 월례회: 오늘 오후 각 선교회별 모임
- 이동농민선교팀 파송예배: 파송예배 오셔서 함께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7/10 (금) 오후 7:30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합니다.
- 이동농민선교 후원 세차 행사
11일(토) 오전 9:30부터. 후원금은 모두 이동농민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헤브론 섬머아카데미: 7/17(금)까지 월~금, 오전 9:30~3:30까지 진행됩니다.
- 교사모집: 사랑이 넘치시는 남자 선생님 두분을 기다립니다. [부서: 초등부 담당대상: 4&5학년 남자반, 조건: 등록세례교인, 문의: 서요셉 목사]
- 매일성경: 7/8월호를 주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
- 감사: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역자동정
출타-정다빈 전도사 (7/6~7/23), 휴가-김태한 목사 (7/10~13)

새가족 환영

-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